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와 테트라팩

Paper carton Recycling and Tetrapak

차 제 영 / 테트라팩 코리아 차장

사회가 발전되면서 포장재 폐기물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시민단체 및 기업들에서 모든 관심과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시 되고 있다.

테트라팩은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라는 모토아래에 포장재 내부의 음료 뿐만 아니라 사람, 환경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테트라팩 환경 부서에서의 핵심 활동은 3R (Reduce, Reuse, Recycle)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Responsible)을 더하여 4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R에 대하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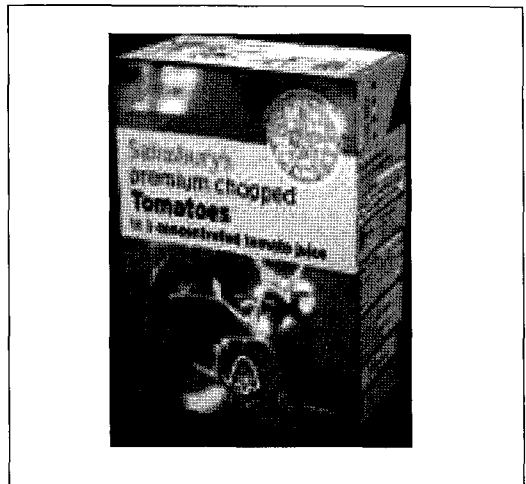
Renewing(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테트라팩에서 생산, 공급하는 종이 포장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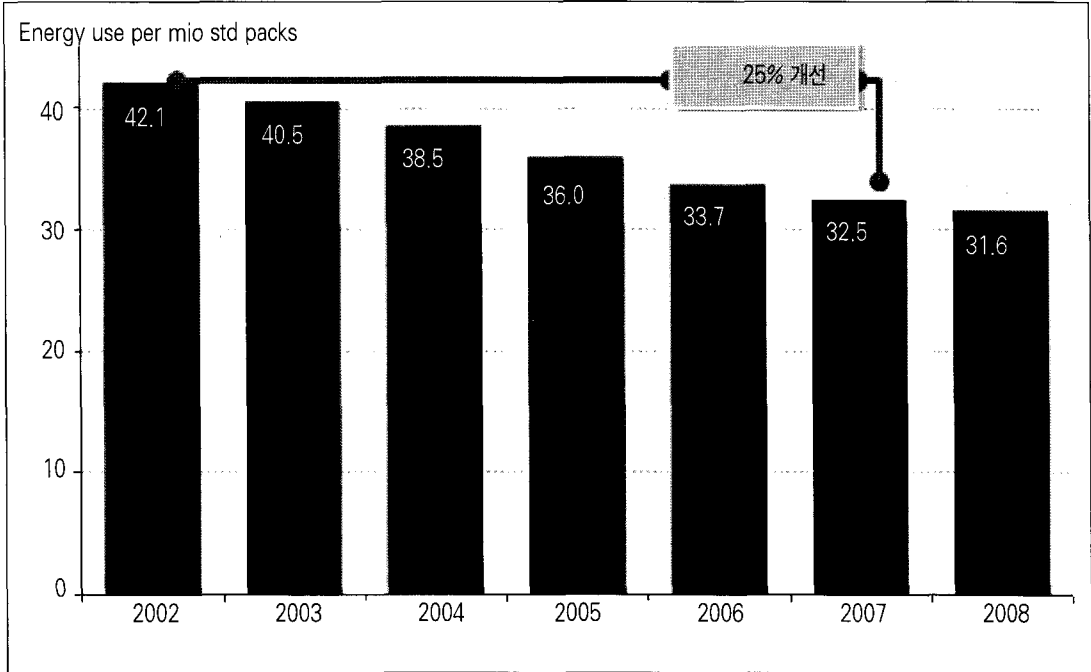
[그림 1] 테트라팩 4R



[사진 1] FSC 인증을 획득한 테트라팩 포장재



[그림 3] 2002년 대비 2008년까지 백만팩 표준 에너지 소비량 개선 사례



두번째로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종이팩 한팩 당 이산화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2002년 대비 2008년까지 백만팩의 표준 에너지 소비량이 25%가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2002년부터 테트라팩 그룹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2005년에 WWF의 Climate Savers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2005년 배출량 대비 절대량으로 10% 감축을 약속하였고 2008년 말에 이미 10% 이상을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린 에너지의 사용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테트라팩 그룹 전체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서는 테트라팩 전사에서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탄소 성적 표지가 표시된 정식품의 बे지밀 에이, 비 그리고 프리미엄 토들러 2단계, 3단계 제품들의 탄소 성적을 공개하였다[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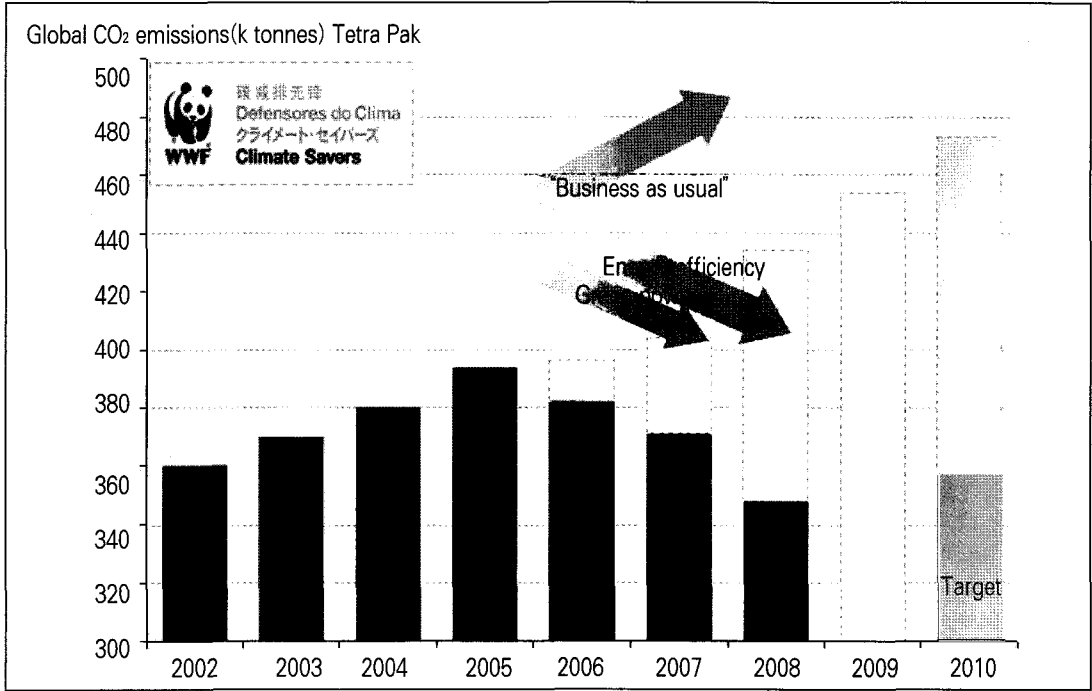
Recycling(자원의 재활용)

환경에서의 재활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테트라팩은 전세계의 각 국가, 환경 담당자들에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재활용 홍보를 통한 종이팩의 수집 및 재활용률 증대, 재활용 업계로의 기술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제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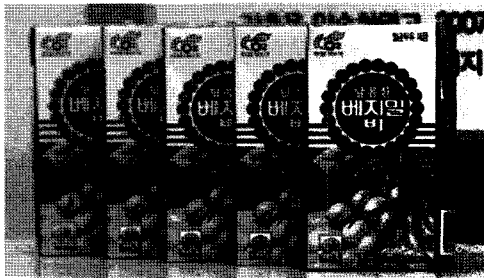


[그림 4] 2002년부터 테트라팩 그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



[사진 2] 탄소성적표지 표시 제품

Tetra Pak Korea: First Carbon Label on our carton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uth Korea has approved the carbon label to be placed on four soy milk products in Tetra Brik Aseptic packages, the first of its category in South Korea. This decision comes at a time when the "green" message is being pushed to the forefront of the national debate and influencing behaviour in the South Korean society.

종이팩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홍보하고 있다.

EPR 제도란, 최종 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종이팩 재활용의 홍보등을 담당하고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의 회원으로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포함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기반 구축, 국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내에서 매주 월요일 종이팩 수집 경진 대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종이팩의 수집 및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항상 강조, 교육하고 있다.

[사진 3] 테트라팩의 환경관련 활동



테트라팩 포장재의 구성을 보면 종이, 알루미늄 포일,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종이 포장재의 종이 즉 펄프를 가지고 화장지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포장재에서 펄프를 제외한 잔유물(알루미늄 포일 및 폴리에틸렌)에서 알루미늄 포일과 폴리에틸렌을 별도 분리하여 각각의 원자재로 재활용 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잔유물에서 알루미늄만 별도로 분리하여 순도 97% 이상의 알루미늄을 만들어 내는 연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테트라팩 포장재도 거의 대부분이 중

이는 펄프로,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 괴로, 폴리에틸렌은 열회수를 통하여 100% 재활용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Responsibly(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의 WWF(World Wild Fund), Global Compact, Gain(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IOF(International Osteoporosis) 및 GCNF(Global Child Nutrition Foundation) 등 여러 NGO 단체들과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사진 3].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에코트리 캠페인, 탄소성적표지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